

## 2019 년 1 학기 One Asia 재단 국제세미나

### 「인문교양:아시아 공동체: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변용」시리즈 강좌(5)

주제 : 동아시아 산업 경쟁과 협력 속의 '새로운 황금삼각관계'

제 5 회 One Asia 재단 국제세미나는 중화경제연구소 일본센터 대표고문이며 대만대학 겸임교수로 계신 쑤시엔양(蘇顯揚) 교수가 강의를 하셨다. 쑤 교수는 (1) 동아시아 산업 경쟁과 협력관계, (2) 국제 분업 체계의 장점, (3) '황금삼각관계'의 진화라는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였다. 쑤 교수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현재 대만이 동아시아 지역 산업 경쟁과 협력 관계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대만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건의나 방법은 무엇인가? 대만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돌파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셨다.

쑤 교수는 동아시아 국가의 성장은 모두 무역을 통해서 발전하였으며 동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성장의 동력을 자신의 국가로 유입하여 자신의 국가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으며, 그 성장 배경에 국제적인 분업이 얼마나 중요한 작용을 하였는가를 설명하였다. 쑤 교수는 먼저 일본학자 카나메 아카마쓰 교수의 '기러기식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재 동아시아 지역은 '기러기식 성장 패러다임의 소멸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산업 경쟁과 협력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관찰할 수 있다.

쑤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대만, 일본, 한국 산업구조는 차별성을 보인다. 우선 대만은 주로 OEM/ODM 전략을 채택하고 비교적 높은 비중의 IT 산업 제조 수출을 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후발주자(follower)에 속하며 기술 통합성(integration)은 약한 편이다. 한국은 브랜드 전략을 통해 고·중·저의 과학산업을 분산 발전시켜 기술적인 측면에서 선발주자(leader)에 속하며 복잡한 산업 시스템 영역을 발전시키고 있다. 일본은 기술창조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나 양산시장(Volume Zone)에서 순조롭지 않아 제조판매, 관리능력에서 대만과 한국 기업에 비해 떨어지고 장기적인 불황을 겪고 있다. 그러나 대만과 일본 기업은 각자의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 대만 기업의 장점은 저비용(cost down), 빠른 의사결정, 효율적 생산관리기술, 시험적 시장(test market), 시발적 역할(gate way), 자금력, 국제화, 시장에 대한 민감도를 가지고 있다. 일본 기업의 장점은 연구개발 능력, 브랜드 능력, 품질보장, 판매후 서비스, 조직관리 능력, 기업에 대한 충성도가 있다.

국제적 분업과 자유무역은 국내에 없는 자원(resource)을 확보할 수 있고, 수출을 통해 규모 경제(economics of scale)를 창출해 낼 수 있다. 그리고 비교우위이론(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에 근거하여 보다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며 수입상품을 통해서 국내 산업의 신진대사기능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중에서 iPhone의 공급 체인은 국제 분업화의 최고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쑤 교수는 iPhone의 부가가치에 대한 설명에서 일본이 최대의 이윤을 장악하였으며 FTA 참여 여부가 수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항금삼각관계’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동아시아 무역의 호혜성과 경쟁성을 본다면

중국의 경제가 전체적인 아시아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고 동아시아 지역 간의 무역을 확대하였다. 동아시아 지역 간의 무역 비중이 1999 년 52.5%에서 2005 년 56.5%까지 확대되었다. 대만-일본-중국 간의 최근 IT기계 산업을 위주로 산업 분업이 이루어지고 세 국가들 간의 분업지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 중심의 분업 체계는 대만-일본-중국 간에 이미 형성되어졌다. 세 국가 간의 쌍방향 무역 금액이 2000 년 1,849 억 불에서 2006 년 3,683 억 불로 두 배 이상 성장하였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 경제 트렌드는 2012 년부터 아베노믹스, 한국의 경제개혁, 중국의 정치경제개혁, ECFA 가 진행되면서 눈에 띄게 변화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구조개혁, 법규완화, 신진대사기능 촉진, 정책결정 속도의 가속화,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혁신 등을 관찰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s://oneasia.pccu.edu.tw/faculty.php>

번역: 장민자(한국어문학과 석사과정)

감수: 김선호(한국어문학과 부교수)